

AWESOME 기권승·무등산생태요양병원 역전승...8강 진출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주차 경기

MK한방병원·초연브라더스 우천 취소...3주차 경기서 승부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주차 경기가 지난 12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무등리그의 대결로 전개된 2주차 경기에서는 AWESOME과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8강행 티켓을 획득했다. 3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무등리그 8강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한 주 미뤄 지게 됐다.

AWESOME은 행운의 기권승을 거뒀다. AWESOME은 첫 상대인 유한킴벌리 양술깡이 기권하면서 기권승의 주인공이 됐다. 손쉽게 8강행을 확정지은 AWESOME은 파트너즈를 상대로 무등기 첫 대결을 벌이게 됐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자연환경과의

대결에서 역전승을 연출했다. 1회 2점을 먼저 내준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이어진 공격에서 2-2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2회 1점을 허용한 뒤 4회에도 2실점을 하면서 2-5까지 접수가 벌어졌다. 4회말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전용환의 한방으로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전용환의 투런포 포함, 4득점에 성공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6회 4점을 보태면서 10-5의 역전극을 연출했다. 3경기에서 맞붙은 MK한방병원과 초연브라더스는 비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MK한방병원이 1회 4점을 뽑아낸 데 이어 2회에도 3점을 추가했지만 비가 계속되면서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두 팀은 3주차 첫 경기에서 재대결한다.

◇무등기 2주차
▲1경기(기권승)
유한킴벌리양술깡 0000000-0
AWESOME 1111111-7
▲2경기
자연환경 2102000-5
무등산생태요양병원 200404X-10
△승리투수:김건국 △홀런:전용환(4회 2점·무등산 생태 요양병원)
▲3경기(우천 서스펜디드)
MK한방병원 43
초연브라더스 1X

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제5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자연환경야구단과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의 경기. 4회초 볼넷으로 진루한 박경중이 박래준의 내야 땅볼때 2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중 야구, 지역대회 3관왕 추계 중등야구 전승 우승

무등중이 지역 야구대회 3관왕에 올랐다. 무등중은 최근 무등야구장에서 끝난 2015년도 추계 중등야구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지역 4개 중학교가 참가해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무등중은 중장중을 12-2, 5회 풀드로 제압한 뒤 진흥중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동성중과의 대결에서 12-7로 이기며 3전 전승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무등중은 제2회 대신육가공배 중등대회(소체예선), 2015 광주야구협회장기 중등대회에 이어 2015 추계 중등야구대회 정상을 밟으면서 올 시즌 광주지역 야구대회 3관왕을 이루었다.



(0.833·총장중)▲최다도루상:박시원(4개·동성중)▲최다타점상:김용학(6타점·총장중)▲감투상:류민승(총장중)▲미기상:최성민(무등중)▲감독상:김성일(무등중)▲지도상:김도연(무등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8위 1.5게임차...5강 아무도 몰라요

KIA, LG에 2-5패...불펜 6이닝 무실점

한화에 패한 롯데에 승차없는 6위 유지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5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시즌 13차전 경기. 6회말 무사 1루에서 KIA 김주찬이 4번 필드의 삼진아웃 때 2루도루를 시도, 세이프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오리무중 5강 싸움이다.

KIA 타이거즈가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주말 2연전에서 1승1패를 주고 받았다. 12일 결승타와 3안타를 때린 신종길·오준혁 테이볼 세터의 활약을 앞세워 7-3 역전승을 거뒀던 KIA는 4연승에 도전했던 14일 '15전16기' LG 류제국 공략에 실패하면서 2-5 패배를 당했다.

2-3회 집중력 싸움에서 패배가 갈렸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에이스 양현종을 대신해 선발로 출격한 홍건희가 2회 2사에서 오지환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했다. 선취점을 내준 KIA가 이어진 공격에서 필과 이범호의 연속 안타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1사 1-2루에서 김원섭의 타구가 투수 글러브로 향하면서 2루로

향하던 이범호가 아웃이 됐다. 그 틈을 노려 홈을 파고들던 필까지 아웃되면서 동시에 아웃카운트 두 개가 쌓였다. 무사 1-2루의 기회를 날린 KIA가 3회초 다시 LG의 한방에 흔들렸다. 1사에서 홍건희가 임훈을 볼넷으로 내보내낸 뒤 연속 안타로 다시 한번 홈을 허용했다. 삼진으로 4번 서상우를 돌려세웠지만 히메네스에게 던진 직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점수는 0-5까지 벌어졌다.

3회 KIA가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선두타자 윤완주가 몸에 맞는 볼로 나간 뒤 신종길의 중앙 펜스 맞는 2루타가 이어지면서 1점을 만회했다. 발 빠른 신종길을 내세워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오준혁이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뒤 김주찬의 방망이가 헛돌았다. 필까지 3루수 앞 땅볼로 아웃이 되면서 분위기가 LG로 기울었다. 홍건희에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부응 또 부응...오준혁 인터뷰에 울컥”

덕아웃 T 특·톡

▲피자 먹으러 가자

피자 먹을 생각에 훈련이 힘든 줄 몰랐던 이흥구다.

LG와의 홈경기가 열린 13일, 훈련 시간에 무엇인가를 흥얼거리고 있던 이흥구. “자피자피를 자꾸 말해보세요, 피자가 돼요”라며 해맑게 웃던 이흥구. 뜬금 없는 ‘피자’이야기. 알고 보니 훈련이 끝난 뒤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이 선수단에 피자를 쓰기로 한 것이었다. 이흥구는 고된 훈련이 끝난 뒤 “피자를 먹으러 가야겠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라커룸으로 향했다.

필은 이날 “앞서 한 차례 동료들에게 대접할 일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 5강 싸움을 위해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피자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의 응원에도 팀은 2-5패를 당했다.

▲제가 울었어요

중고 신인 오준혁에게는 떨리지만 재미있는 인터뷰였다.

오준혁은 12일 LG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2루타, 첫 3안타 경기, 첫 3득점을 기록하면서 7-3 승리의 주역이 됐다.

덕분에 경기가 끝난 후 첫 MVP 인터뷰를 한 오준혁. 덕아웃에서 ‘인터뷰’가 대화의 주제가 됐다. 오준혁은 “예전에

이대수 선배님이 골든글러브를 받고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울었다. 정말 간절하게 야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완주는 “나는 어제 너의 인터뷰를 보고 울컥했다. 계속 부응하지 못했다고 부응 부응을 말하는 것을 보고 참 간절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며 농담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랜만의 기록이었다. 투수 한승혁은 12일 LG전에서 2-3으로 뒤진 4회 선발 유창식에 이어 마운드에 등판했다. 4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한승혁은 5회도 탈삼진 하나 포함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그리고 4회말 팀 타선이 대거 5점을 뽑는 데 성공하면서 모처럼 승리 투수가 됐다.

5월20일 홈드 이후 기록이 없던 한승혁의 모처럼의 승. 13일 한승혁을 본 프런트가 “언제 승리투수가 됐는지? SK 전에 잘 던졌었는데”라며 지난 시즌 이야기를 하자 한승혁이 “그건 지난해 일인데, 제가 그동안 정말 못했나 보네요”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에서 “5월17일 이후 첫승이고, 5월 20일 홈드 이후 처음이다”고 덧붙이자 한승혁은 “그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면서 속스럽게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준표가 3이닝을 피안타 없이 2타삼진으로 깔끔하게 막으며 허리싸움을 펼쳤지만 후속타 불발의 타격이 계속되면서 경기는 2-4패로 끝났다. 승수를 더하지 못했지만 KIA는 롯데에 이어 승차 없는 6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는 롯데와의 대결에서 로저스를 앞세워 5연패에서 탈출했지만, 1.5게임차로 7위에 랭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